불국토를 찾아서

울산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

##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이고 싶어요"

"이곳에서 공양 드시는 분과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분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고 맛있게 드셔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자타의 집'은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주지 만초)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로, 벌써 16년째 울산 북정동 어르신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수자타의 집'에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매일 아침 신선한 식재료로 점심공양을 준비하면 11시부터 배식이 시작돼 오후 1시까지 공양시간을 갖는다. 사실 공양 시간은 1시간 늦은 12시 부터였다고. 역시 '수자타의 집' 문밖에는 오전 8시부터 할아버지들이 점점 모이고 있었다. 북정동 최고의 사랑방인 셈이다.

'수자타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봉사자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카레라이스다. 16년을 한결같이 '수자타의 집'과 함께해온 김순옥 보살은 "주로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니까 건강을 생각하게 된다. 카레는 치매예방에 좋으니까 어르신들께 공양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매일 1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5~6명의 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이날은 해남사 부설 동국유치원 어머니 모임인 '동국회'에서 봉사했다. 집에서 가족들의 아침밥도 짓고 왔을 보살님들은 찬물에 빨갛게 언 손으로 남자어른 주먹만큼 큰 감자 껍질을 벗기고, 당근을 손질하고, 밥을 짓느라 바쁘지만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방학을 맞아 어머니를 따라온 김형진 학생(학성고1)은 "어릴 땐 종종 봉사활동을 하러 왔는데 학교 다니느라 잘 찾질 못했지만 앞으로 자주 찾아와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매일 다른 팀의 봉사자들이 찾기 때문에 운영 ·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김순옥 보살은 매일 오전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일지'와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 운영일지' 2권에 그날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보살의 작은 수첩에 100원 단위로 장을 봐온 가계부도 있다. 이렇게 철저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 덕분에 오늘의 '수자타의 집'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16년의 긴 세월만큼 감동의 순간도 많았다. 김순옥 보살은 "어느 날인가 청년이 찾아와 용돈을 아껴 모은 돈이라며 1만 7000원을 손에 꼭 쥐어주고 갔다. 그 돈으로 태화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와 어르신들이 참 맛있게 잡수셨다"고 회상했다. 또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할아버지 한분이 까만색 포장지에 '박 아무개'라고 당신의 이름을 쓴 선물을 수줍게 건넸는데 열어보니 양말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만초 스님은 "사실 '수자타의 집'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해남사와 봉사자들"이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카레를 만들던 김순옥 보살에게 법명을 물었더니 세월이 오래 지나 잊었다고 부끄러워했다. 취재를 마칠 때쯤 그 분의 법명을 알 것도 같다.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 올렸던 '수자타'는 아니었을까? 박지원 기자

# "어린이들 부처님 마음으로 자라도록 힘써야"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련 회장에 심산 스님 추대

(사)동련은 새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산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을 추대했다.

2009년 1월 17일 오후 5시 홍법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이사장 인사말, 성원보고 및 안건상정, 감사보고, 2008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심의, 2009년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 심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추천과 승인의 건, 위촉장 수여 및 회기전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사)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관음사 주지)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심산 스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사장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막 불사를 마친 새 대웅보전에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처님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홍법사가 이름 그대로 세계에 널리 불법을 홍포하는 전법도량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 17일 열린 (사)동련의 첫 정기총회 후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사)동련 동화구연회장 덕진 스님(울산 정토사 주지)은 "심산 스님과 함께한 홍법사 불자들의 원력으로 도량 불사를 원만 회향한 만큼 다시 한번 어린이포교에 큰 원을 세워 부처님 법대로 사는 불국토를 함께 만들자"며 격려했다.

한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사)동련의 산하단체로 1986년 창립해 어린이포교를 위한 각종 불교행사 기획 및 지원, 전국어린이법회 지원 및 지구조직 관리, 어린이지도자 양성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인터뷰-심산 스님

## "어린이에게 불교 미래 있어요"

"어린이불교가 일어나야 한국불교가 바로 서며, 불교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스님은 임기동안 "조직개편을 통해 (사)동련 법인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각 지부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영역을 더 넓혀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회 중심보다는 어린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흥미 위주로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역대 회장을 거쳐 간 어른스님들께서 세우신 취지와 열정이 길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원 기자

# 소외 이웃에 자비 손길

## 마창불교련·금강자비회 나눔 한마당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사)금강자비회(이사장 이재남)는 1월 15일 오후 창원시청 강당에서 '제19회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와 (사)금강자비회가 1월 15일 개최한 '제19회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

이번 행사에는 마창불교연합회와 금강자비회 관계자를 비롯해 박완수 창원시장, 안홍준 · 권영길 국회의원, 이순항 경남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지역 저소득 한 부모 가정 40세대, 무의탁노인 및 장애인 13세대, 저소득가정 고교생 15명, 경남시각장애인회 보장구 지원, 국립마산병원 환후 후원금, 자비 나눔 무료급식 후원금 등으로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재남 이사장은 "기축년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자리에 동참해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늘 격려하고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 희망을 잃지 말라"며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이 넉넉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니 누구나 다 어렵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자"고 설했다.

한편 매년 초 열리는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은 마산창원지역 각 사찰 · 신행단체에서 동참해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약 4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 불교계 현안 협력 약속

## 부불련 한나라당 의원 신년간담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월 12일 오후 서면 롯데호텔에서 한나라 부산시당 소속 의원들과 신년하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 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한나라 부산시당 김정훈 위원장, 안경률 사무총장, 허원제 · 유재중 의원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불교계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올해부터 부산불교연합회는 석가탄신일 연등축제와 팔관회에 각각 3억원, 2억원 등 처음으로 총 5억원의 정부 예산을 받게 됐다.

이에 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은 "한나라 부산시당의 노력 덕분에 문광부로부터 석가탄신일 3억원, 팔관회 2억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돼 감사하다"며 "이들 불교행사들이 국가적 축제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훈 위원장은 "축제 예산 건 외에도 각 사찰관련 규제법으로 무허가건축물로 분류돼 현재 강제이행금을 내는 사찰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사찰은 공익을 위한 건축물인 만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 불교예술인련 부산지부 출범

## 봉사 · 포교 진력

불교문화 예술인들의 포교 · 봉사 모임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연합회 부산지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연합회 부산지부는 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영도 불광사(주지 혜광)에서 신년하례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신임부산지부장 혜광 스님 및 임원단, 시의회의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지부장 및 공동회장 추대, 임원진 위촉 및 임명장 수여, 지부장 기념사, 회장단 인사, 2009년 사업계획 보고,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지부 첫 임원진으로는 불광사 주지 혜광 스님이 부산지부장으로 추대됐고, 이하 지문위원장 및 공동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 총 14명이 위촉됐다.

부산지부장 혜광 스님은 "나라와 이웃이 편안해야 풍년이 든다는 선조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내어 자비와 수행을 실천하고, 불법으로 우리 사회 속에 긍정과 수행의 힘을 전하자"고 말했다.

2009년 중점추진사업으로 △불우이웃, 청소년 가장, 장애우 돕기 △범세계적인 불교문화 예술인 간 교류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포교활동 강화 △템플스테이를 통한 참 불교 이해증진 및 자아성취 지원 등 4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박지원 기자


# 대한불교 법화종 전국사암 주지 및 대표임원 여러분

삼보에 지심귀명례 하옵니다.
밝아오는 기축년에는 종도스님 여러분께서 모두 법체 청안 하시옵고 불사 원만 성취 하시길 발원 합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위원회는 종도스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보내주신 정의로운 의견을 모두 모아서 총무원장 혜륜(김용대)이 그간 저질러온 부정부패 중 사안이 위중한 금불사(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2008고제 7924호)건 . 은적사.대방사(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2008고제 8021호)건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여 당해 경찰서인 성북경찰서에서 초등수사가 2009년 01월 마무리 되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혜륜 김용대가 정화위원회 스님들을 상대로 창원지검에 고발하였던 명예훼손건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화신문에 정화위원회을 비방하고 명예훼손한 대책위원장 보광스님(중앙종회 부의원장)을 2008년12월09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서울중앙지검 2009형제3%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원장(김용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08카합 3177호)을 하였고 정화위원회 스님들은 징계처분무효소송(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97398호)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혜륜 김용대가 내 임기내에 납골당 건립은 없다고 큰소리치며 교헌사를 상대로 납골당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사건(2008카합534호)은 기각되었으며 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2009년01월09일 선고받아 종단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 올 것입니다. 교헌사측에서는 총무원청사 외 종단자산 또 종찰을 이미 모두 파악한 상태로 조만간에 그 손해액을 돌려 받기위한 압류조치를 할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총무원장 김용대에 관한 사건이 여러곳의 법원과 검찰에서 심리 또는 조사 중이었는데 사건 모두를 서울중앙법원 및 지검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심리 및 조사가 진행될것이라 합니다.

종도 여러분 !
지난 무자년은 대한불교 법화종 종사에 씻지 못할 치욕과 아픔의 해로 기억 될 것입니다 이미 불교TV뉴스와 불교신문 보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12월 1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대한불교법화종을 제명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불교 법화종이 창종되고 초대종정 김갑열(혜일)이 주석하던 우리 법화종의 본산이라 알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3번지의 무량사가 2008년 12월에 다른 종단 스님에게 16억원에 매각 되었습니다. 무량사에는 대한불교 법화종도의 염원이 담긴 무게 3000관의 대종이 있습니다. 이 종에는 전국교구에서 불사에 동참했던 스님들의 법호와 불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량사에는 수많은 공덕비가 있는데 그 공덕비에는 역대 스님들의 흔적과 대한불교 법화종 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대 종정 김갑열(혜일)의 손자인 최성호가 제출한 법화종 종권확인 제소사건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2008가합107714호)과 . 안정사 주지지위확인의소(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08가합112341호)를 보면서 더 이상 종단의 앞날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종단이 이 보다 더 치욕적일 수 없는 현 상황에 더 기다릴 수 있으며 더 바랄게 있는지요?

전국의 종도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찌하다 대한불교 법화종이 이지경까지 왔을까요?
종단의 어른이라 하는 종정이나 원로의원 또 총무원장 김용대 및 그 집행부 그리고 중앙종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종사에 이런 치욕과 종도들에게 아픔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리사욕에 눈먼 스님들이 모여서 자신의 안일과 치부에 허덕이느라 종사와 종도들을 욕 먹이고 수만금을 줘도 얻지 못할 종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버린 작금의 집행부를 아직도 더 두고 보자 하는 이 들에게 고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종단이 바로서고 종무행정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대한불교 법화종의 미래는 없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지금부터라도 모두 모여서 구종의 방법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종도들이 마음을 모아 그 행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정화위원회 사무실 :
전화 053)643-4771 / 팩스 053)643-4772 로 문의 바랍니다.

2009년 1월 23일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